

경상남도지사 AFRA 방문

김혁규 경상남도지사는 한국기계연구원 창원분원내에 위치한 항공우주 부품·소재 공동연구단지(AFRA)를 4월 1일에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경상남도가 연간 1억원의 대응자금을 AFRA에 출연하기로 협약이 있는 후의 방문이라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김혁규 도지사는 이 날 방문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AFRA의 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AFRA의 관련 시설과 장비를 시찰하였다.

항공기를 비롯한 각종 산업제품에 활용되는 건식코팅기술을 이용한 벤처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실을 찾아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면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는 등 중소기업체와 벤처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김혁규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항공우주산업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AFRA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지원에 더욱 더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육군 제3정비창-AFRA 기술 교류회 개최

육군의 헬기 창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 제3정비창의 김문영 창

장을 비롯한 간부급 25여명이 AFRA를 4월 27일에 방문한 가운데, 기술간담회와 시설견학 등의 기술교류회가 개최되었다. 시설견학에 앞서 진행된 2시간의 기술간담회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항공기 부품·소재분야의 연구현황과 실적이 소개되었다.

육군 제3정비창에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국내 항공기 부품·소재산업의 현황과 기술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軍의 기술 향상을 위해 민간기술의 활용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 군헬기 정비기술의 향상과 소요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AFRA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다.

한편, 5월 11일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원 20여명이 육군 제3정비창을 방문하여 헬기정비공장과 각종 시설을 견학한 바 있다.

'99년 제1차 산학연관 추진위원회 개최

AFRA사업의 '99년도 제1차 산학연관 추진위원회가 4월 30일에 한국기계연구원 창원분원에서 18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산학연관 추진위

원회(위원장 : 대신금속 박수현 사장)는 일년에 2번의 정기모임(4, 10월) 통해서 AFRA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산학연관 추진위원회에서는 AFRA의 당해연도('98.9~'99.8) 중간사업보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또한, 현재 중기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항공기 부품용 신소재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기획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항공우주산업과 이성원과장은 항공기 부품소재의 개발전략은 항공기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여타 산업과 차별화 되어야 하며, 본 연구기획사업을 통해 도출된 국산화 품목이 산업자원부 중기 거점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본 추진위원회에서는 3차년도(1999.9~2000.8)에 신규 구매할 시범생산장비로 복합재료 성형장비인 Multi-Axis Fiber Placement Machine을 선정하였다.

항공기 부품소재 국산화 품목 조사

산업자원부의 '99년도 중기 거점사업 후보과제 중의 하나인 "항

공기 부품용 신소재개발"에 관한 연구기획조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창원분원은 항공기 부품소재 국산화 대상품목 파악을 위하여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완제기 조립업체를 방문 조사하였다. 주조, 단조, 압출, 복합재료, 후처리 분야로 구성된 산학연 실무작업팀은 공동으로 방문 결과를 토대로 국산화 품목에 대한 세부문서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분야별 관련 소재부품업체를 개별 방문하여 완제기 업체에서 제출한 국산화 품목을 대상으로 부품국산화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본 항공기 부품소재 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추진방향과 산업체 참여 역할정립을 위한 공청회가 6월 1일에 한국기계연구원 창원분원에서 개최되었다. 앞으로 6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 우주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움 개최

과학기술부에서 추진중인 남해안 우주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우주센터 최적지 조사가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센터 발사기지를 경남에 유치하기 위한 심포지움이 4월 22일 한국기계연구원 창원분원에서 약

150여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와 관련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제1차 행사(경상대학교 1999. 3. 24)에 이어, 두번째로 경상남도가 후원하고 한국기계연구원과 경상대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로 4명의 주제발표자와 4명의 토론자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심포지움의 진행은 "국내외 우주개발 현황"(김승조 서울대 교수), "경남의 우주센터 유치와 첨단산업 발전"(이우배 경남개발원), "발사지점 선정을 위한 우주발사체 궤적 해석"(최재원 부산대 교수), 그리고 "우주센터의 위치 선정과 지역개발"(김영 경상대 교수) 순으로 발표되었으며, 발표가 끝난 후에 일본(NASDA)의 우주개발 홍보비디오 방영이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주제 발표자(4명)·박완수(경남도)·이용태(기계연)·임수근(경상대)·이성룡(창원대) 등의 지정토론자와 사천시장·고성시의회 의장·지역대표들이 참여하여, 우주센터의 환경피해 문제, 항공우주산업 육성 전략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 2회에 우주센터 유치 심포지움에서 경상남도는 지역민으로부터 우주센터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합심하여 우주센터의

경남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청소년을 위한 열린 캠퍼스 - Techno Show 개최

경상대학교 항공공학특성화 사업단과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는 5월 29일에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로 '청소년을 위한 열린 캠퍼스-Techno Show'를 공과대학 시청각교육실에서 개최하였다.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진주, 사천 및 인근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 유일의 항공공학 교육·연구중심인 경상대학교를 소개하고 청소년에게 항공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과 일반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AD/CAM/CAE 작품전시회, 모형항공기 전시 및 비행시험, 모형 로켓 발사시험, 자작자동차 전시, 주행시험 및 시승,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항공기계공학부 모형항공동아리인 'R·C(Radio Control)', 자동차연구동아리인 '카텍'과 '비거'가 직접 제작한 모형항공기의 시험비행과 '개척 1·2호', '비거1호'의 주행시험 및 시승에 참석자들의 눈길이 모아졌다.